인동초, 영면해서도 남북화해·협력 물꼬 트다

■ 북 조문단 이대통령에 김정일 메시지 전달

핵·정상회담 제안 문제 등 담겼을 가능성
나포 어선·금강산 관광 재개도 조율한 듯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상을 뜨면서도 남과 북의 손을 맞잡게 하면서 평생 숙원이었던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

김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한한 북한의 조문단이 지난 22일 현인택 통일부장관과의 회동을 가진데 이어 23일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남북한 고위 관계자의 회동에 이은 북한 조문단의 이 대통령 면담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경색 국면을 보였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서거와 맞물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 10·4 선언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지난해 12월1일부터 취한 육로통행제한 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하고 경의선 철도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핵 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의 전제 조건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북한 측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 조문단의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지난 22일 현인택 통일부장관과의 만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남북당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김정일 전 대통령 조문단 일행을 약 30분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조문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풀어나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조문단은 "이 대통령께서 면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남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날 회담 내용과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비공개됐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핵 문제와 정상회담 제안 등 획기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북한 측에 나포된 '800 연안호' 송환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 등 세부 현안들은 이미 지난 22일 현인택 통일장관과의 회동에서 일정한 의견조율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수행 횟수에서 최다를 기록한 김기남 비서나 명실상부한 대남 실세며 김 위원장 최측근인 김양건 부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방한한 북한 조문단의 청와대 예방으로 추후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북 핵 문제 진전 상황과 맞물려 점차 해빙의 조짐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길에 남북 간의 화해의 장을 만들어 줬다"며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차 방남한 북한 사절단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책상 위 7월10일 주간일정표 고스란히
침실·거실 곳곳 검소·소박함 묻어나

■ 주인 잃은 동교동 사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삶의 터전이자 정치적 거점이던 동교동 사저. 23일 다시 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주인을 보내며 그 자취와 향기마저 고인에게 선사했다.

영결식이 끝난 이날 오후, 손자 종대(23)씨가 김 전 대통령의 영정을 들고 동교동 사저 곳곳을 돌았다.

'ㄱ'자 모양의 2층 건물로 돼 있는 사저는 입구로 들어가면 정원이 보이며 1층에는 거실, 2층에는 침실과 서재 등이 있다.

이번에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 2층 서재는 고인의 치열한 삶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5평 남짓한 이곳에 대략 7백권 정도의 책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만 더 많은 책이 김대중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책장 뒤편에는 김 전 대통령이 입원하기 전까지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받았던 간이 침대가 놓여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서재 책상 위 가운데에는 7월10일 9시46분 현재 날짜로 작성된 '주간일정표(7.11~25)'가 놓여져 있고 일정표에는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연설', '세브란스 안과' 등의 일정이 적혀 있었다.

일정표 오른쪽으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연설의 줄거리가 적힌 A4지 원고가 남아 있으며 DJ가 입원 전 읽은 것으로 보이는 '조선 왕조 실록', '제국의 미래', '오바마 2.0' 등의 책이 놓여 있었다.

침실과 거실, 서재 곳곳에서는 김 전 대통령 내외의 검소함이 묻어났다.

사저 곳곳에 있는 6개의 형광등 버튼 중 4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없애는가 하면 보일러 온도표시계 위에 '18~22도 적정온도'라는 문구를 붙여 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영면 순간까지 곁 지키고 장례 등 정부측과 조율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복심'으로 통하는 박지원 의원은 영면의 순간까지 곁을 지킨 '영원한 비서실장'이 됐다.

DJ 퇴임 후에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박 의원은 DJ가 지난달 13일 입원한 뒤 하루에도 몇 번씩 국회와 병원을 오가며 병상을 지켰고 눈을 감는 순간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DJ의 서거를 공식발표하는 브리핑에서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나타났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중히 모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당 대변인 시절부터 새벽마다 동교동과 일산의 DJ 자택을 찾아 수첩에 깨알같이 메모를 하며 성실함을 인정받았던 그는 누구보다도 DJ의 의중을 잘 아는 'DJ의 입'으로 불렸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등으로 DJ의 분신역할을 했던 그는 참여정부 들어 대북송금 특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지난해 4·9 총선으로 정계에 복귀한 뒤에도 매일 동교동 사저를 찾아 정국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정도였다. DJ는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 무소속 출마한 박 의원에게 부인 이희호 여사를 보내 지원유세를 펼쳤고 당선되자 본인의 일처럼 기뻐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과 신뢰를 보냈다.

그는 DJ 서거 후 의료진과 함께 공식 브리핑을 한 데 이어 DJ측 대표 자격으로 장례형식 등 후속절차에 대한 정부측과의 조율 창구를 맡는 등 진두지휘하며 DJ 사후에도 비서실장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희호 여사의 순애보

옥중 남편 생각하며 한겨울 찬방서 지내기도

반백 년 영광과 고난의 동행을 마치고 23일 임을 떠나 보낸 이희호 여사의 순애보가 새삼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여사는 지난 20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입관식에서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잘도 참고 견딘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쓴 편지를 고인의 품에 안겼다.

이 여사가 스스로 "꿈이 큰 남자의 밑거름이 되자고 결심하고 선택한 결혼"이라고 밝혔듯 김 전 대통령이 옥고를 치를 때는 옥바라지로, 미국 망명 때는 후견인으로, 가택연금 때는 동지로, 야당 총재 시절에는 조언자로 정치 역정을 함께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남편이 진주교도소에 구금되자 이 여사는 진주와 서울에서 일주일씩 지내며 남편 곁을 지켰으며 남편에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썼다. 겨울에도 안방에 불을 넣지 못하게 했다. 유난히 추위를 타는 남편이 영하의 감방에서 떨고 있는데 혼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지미 카터 미 대통령에게 구명을 청원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국제사회를 향해 구명 운동을 벌였고, 각종 선거 때는 전국을 누비며 헌신적으로 지원유세를 펼쳤다.

김 전 대통령은 저서 '내가 사랑한 여성'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바로 아내와의 헤어짐이 너무도 아쉽고 슬프기 때문일 것입니다"라는 말로 아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90에 가까운 이 여사는 이날 가족의 부축을 받은 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떼는 등 몸을 가누기 힘든 모습으로 영결식과 안장식에 참석,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반평생을 함께했던 반려자를 먼저 보낸 이 여사는 이날 그의 마지막 편지대로 고인이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의 품 안에서 편히 쉬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